

김곰치의 《발바닥 내 발바닥》

생태 환경의 변화, 논쟁 아닌 고민거리

글_허아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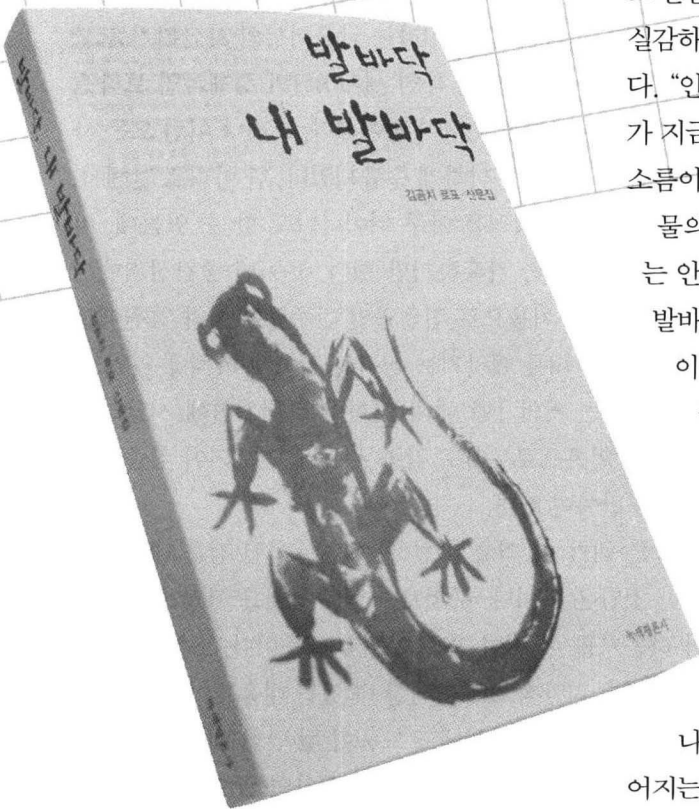
서울은 오늘 하루 더웠지만 부산은 비가 제법 내린 하루였습니다. 황사 먼지를 씻어 준 고마운 비였지요. 중국 대륙 한가운데서 불어온 황사 때문에 아이들은 기침을 하고 목이 아프다면서 “선생님, 대륙 끝인 여기 부산까지 황사가 불어오다니 신기해요” 합니다. 대지의 분노 같은 모래 바람을 맞고서야 지구는 등글고 하나의 땅덩어리인 것을 실감하는 모양입니다. 어느 인디언 시인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들이여, 봄에는 뒤꿈치를 들고 사뿐히 걸어라. 대지의 어머니가 지금 새 생명을 잉태하고 있으므로” 이 짧은 시구를 읽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 저도 그렇게 봄이 움을 느낍니다.

물의 날과 식목일을 지내면서 또 3월 말 새만금 간척사업이 재개되는 안타까운 판결을 접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읽은 책은 《발바닥 내 발바닥》이었습니다. 환경이나 개발이나를 둔 열띤 논쟁거리를 떠나 이 책을 함께 읽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당대 어른들의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미래에 만나게 될 그들의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품성을 가질 우리의 청소년들이 지금의 어른들이 마음대로 저지른 어리석은 일들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그 책임을 추궁해 올지 두렵고 미안한 마음에서라도, 현재의 모든 삶에서 깨어있는 의식과 실천은 세대를 통틀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저자의 입장을 떠나 르포라는 글의 형식이 가진 사실 전달의 힘으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역사적 장면들을 함께 생각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책이었습니다.

저자는 ‘생명에는 대안이 없다’ 고 했습니다. 천성산이 뚫릴 때 흘린 눈물과 새만금 갯벌이 죽는 눈물을 어떻게 비교하냐고 했습니다. 개발은 사람의 짓이니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수용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로도 개발이나 환경이나의 논쟁 한가운데 뚜렷한 주장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지을 스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섬세하고 여리고 절절한 작가로서의 문학적 감수성의 목소리는 분명한 듯 합니다.

책을 읽고 학생들은 각자의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주장과 논거가 분명하기도 했고, 저자를 모신 토론자리에서도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어째서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연을 파괴한다는 것일까? 이럴 때는 학교에서 배운 생태론이니 친환경론이니 하는 이론들이 아



《발바닥 내 발바닥》 김곰치 지음 | 녹색평론사 | 294쪽 | 값8,000원

●이 글을 쓴 허아람은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난 1990년도부터 독서토론 공동체인 아람샘을 운영하고 있다. 2004년 8월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서점 <인디고서원>을 열고 책읽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꾸리면서 《my beautiful girl, indigo 인디고 서원, 내 청춘의 오아시스》(공리)를 펴냈다.

무런 쓸모가 없다. 친환경적인 것에 대한 유행이 일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환경과 경제가 부딪치는 곳에서 꿈꾸니를 빼고 늘 경제의 손을 들어준다.’ (고2 박은빈)

‘교통과 통신 발달 등으로 세계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지울스님의 단식투쟁은 너무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사회는 개발이 불가피한 사회이지 않느냐. 무작정 환경만을 고려하여 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고1 이동원)

저는 이 책을 통해 학생들이 내뿜는 각자의 입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거나 주장을 옹호하는 것엔 관심을 덜 보였습니다. 침예하게 대립되는 주장들 속에서 이 아이들의 미래에는 여전히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대립과 모순 속에서도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며 동시에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와 진정한 다원주의를 만들어 낼 희망으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 역시 어른들이 논쟁하고 있는 사안에 주목하기도 했지만 어른들이 놓치고 있는 명징한 진실을 건져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연을 지키는 것. 이것은 손익구분을 떠나서 가장 순수하게, 본성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마치,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듯이, 우리는 우리가 거대한 생태계의 흐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 기나긴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에서 찰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가고 있다. 그러다가 자연재해라도 발생하면 자연의 위대함과 공격에 대한 공포를 느끼곤 한다. 우리는 자연재해를 언론이 잠깐 화제거리로 삼을 수 있는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고2 김나리)

본문 중에 ‘도롱뇽 소송 재판부에 올리는 탄원문’의 일부에는 아래의 절절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 속에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가 없기에 지울스님이란 분은 제게 불가해한 존재입니다. 어떤 부모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태어나야, 어떤 훈육을 받으며 자라야, 청소년기에는 어떤 책을 읽었어야, 어떤 친구와 우정을 나누었어야, 어떤 훌륭한 스승을 만나 무슨 귀한 가르침을 받아야, 어느 누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잃고 지독하게 마음 아팠어야, 하여 자신의 마음을 궁극까지 탐구하겠다

고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얻어가는 피 흘리는 정신의 수련을 해야 마침내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는지, 제 판단과 의지를 믿고 온몸을 던지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저는 도무지 요량할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지울스님이 너무나도 먼 존재로 여겨질 때면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며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저 외로워지고 맙니다.”

저지는 ‘내 삶이 메시지입니다’라고 했던 간디의 가르침처럼 지울스님의 큰 뜻을 섬기는 듯 보입니다. 편지 형식의 이 글에서 문득 제가 간절히 바라던 것은 작가로서 자신에게 던진 진지한 질문들이 우리 청소년들 자신에게도 유효한 질문이었으면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귀한 생명을 귀하게 부릴 줄 아는, 내 생명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생각으로 정신과 마음과 육체의 에너지를 조화롭게 끌어낼 줄 아는 힘을 가진 주체적인 개인으로 성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을 껴안고 사랑하고 극복하는 시민들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때에 살아있는 갯벌은 사라지고 생명 그자체인 천성산은 뚫렸어도 기성세대를 원망하며 발목 잡혀 있기보다 그들의 미래를 위한 아름다운 대안과 실천을 앞세우는 지혜로운 세대가 되길 바랍니다.

3년 전 ‘한국의 새’라는 비디오를 통해 넓적부리도요 새를 알게 된 13살의 영국 소년 토비아스 놀란이 생각납니다. 친구들과 함께 환경단체 ‘에코프라이어’를 결성했고, 그 첫 사업으로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 청원 운동을 벌였습니다. 불과 3주일 동안 4천 명의 서명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연이어 그는 ‘새만금에 반대하는 학생들’이란 네트워크를 만들어 국제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들에게도 안타까운 소식은 이미 전해졌지요.

오월입니다. 봄기운 가득 머금은 신록 사이로 구비 구비 펼쳐진 우리의 산화와 바다를 맨발로 걷고 뒹굴고 누비는 우리 청소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뒹꾸치를 들고 대지의 어린 것들을 밟지 않으려는, 섬세하고 착한 눈길과 손길을 지닌 아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마다 동네마다 우리 환경지킴이 생태지킴이 아름다운 모임을 자발적으로 많이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라이어’와 같은 작고 건강한 개인과 공동체가 네트워크해서 지구공동체의 아름다운 연대의 힘으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줄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